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서언(2) 누구나 불교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재... 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나서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들의 말은 무슨 소리지 알아듣기가 버겁습니다. 이렇게 난해와 모호에 지친 사람들을 향해 이번에는 너무 격이 낮고 결가지인 지루한 이야기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한편에서는 한문 경전의 용어와 어투를 그대로 외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화두선을 중심에 세워 일상의 대화와 상식의 접근을 근본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아는 데는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육조 혜능은 그런 정규 커리큘럼이나 경전 지식의 권위가 오히려 불교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추어가 외람되지 않는 것은 전문가의 불교가 너무 어려워서입니다. 지금 불교는 너무 높고 험준해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듭니다.

최근 그 틈을 메워보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두고 대학에서의 강독이나 대중 상대의 문화강좌가 많이 생기고 있고, 사설 참선 단체들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불성은 있고 있던 옛 추억과 같은 것" 행입(行入)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보탤 곳은 아무래도 이입(入)입니다.

소식은 흡사 방 한 구석에 먼지 덮여 있는 어둠 때의 장난감 같은 것이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

소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알려져 있습니다.

깨달음 이후 지속적 실천 과정이 중요 저는 그것을 일별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돈오점수(頓悟漸修)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돈오(頓悟)는 쉬운데 점수(漸修)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 돈오(頓悟)를 살아가는 것이 점수에 속합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심화와 지속의 실천적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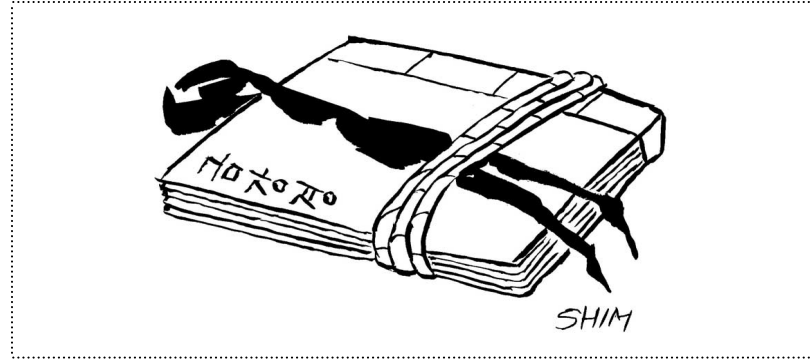
요컨대 불교의 이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등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연재는 불교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연재한 아담에 범석입니다.

'마음' 알고 닦는데 너·나 구분 없다

무엇보다 불교가 너무 어렵다는 소문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불교가 가르치는 마음의 진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새로이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안다면, 그것은 마구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곤 합니다. "마음의



다시 말하지만,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비밀은 우리 자신에게 미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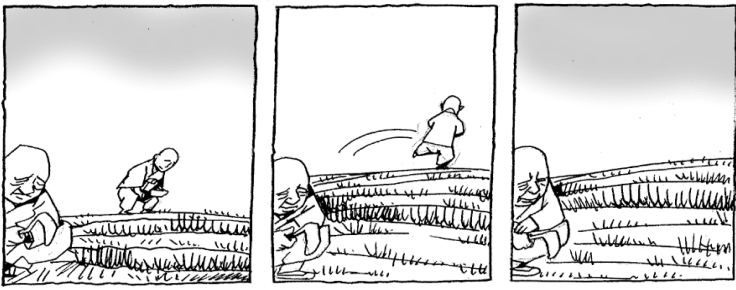
공정함 등의 무량한 네 마음들이 문득 피어날 때, 저녁 고요 속에서 들뜬 마음을 잠깐을 통해 가라앉히고, 그날 지은 죄가 무겁게 가슴을 치며 참회하는 마음이 멍하게 일 때, 그때 우리 마음의 본래의 빛이 환하게 떠올라 옵니다.

주장사파라...

고암 스님의 '방생'



조태호



고암 스님(1899-1988): 경기도 파주 생. 해인사에서 제산 스님 은사로 득도. 대교과 수료후 전국 선원에서 정진, 백련사, 직지사, 범어사 등 선원 조실 조계종 3·4·6대 종정.

네터즌 교리문답

"돈오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적자인심 견성성불을 주장하는 선은 단박개침(頓悟)을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단박에 깨친다는 말인가요? 개침의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ID '문자는')

답 1: <육조단경>에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써 관조하여 인땀에 사무쳐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만약 본래의 마음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답 2: 같은 불교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용어가 달라 쓰인다. 초기불교의 대답은 연기법(근거: 가전연경)이며, 중관불교의 대답은 무자성(無自性), 공(空), 중도(中道)이다.

답 3: 도대체 무엇을 깨친다는 말인가? '오직 마음 뿐임' (一心)을 깨닫는다. 이미 자성은 완전하여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음을 깨닫는다.

답 4: '삼계는 오직 마음 뿐이요, 만법은 오직 의식일 뿐' (三界唯心 萬法唯識)임을 깨닫는 것이다. (ID '부천시민')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5.

상식퍼즐

1.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 하나, 수륙괴물 2. '그림의 떡'을 뜻하는 한자성어 3. 상가집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함 4. 물건이나 자재를 보관하는 건물 5. 어떤 일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함 6. 지구를 본떠 만든 모형, 지구본의 다른 말.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지국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증장천왕의 네 분의 천왕을 모신 문 7. 깨닫게 함 8. 북반구에서 밤이 가장 긴 날 9.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 10. 병기를 만드는 군인이나 부대 11. 상고한 소송사건에 대해 조사·심리하여 판결하는 일 12.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작품을 모범삼아, 형식미를 중시하여 조화·균형을 추구하던 창작태도 13. 허투릭 거품 14.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는 일, 백일OO 15. 모든 것을 알.